

# 당국 “코로나19 숨 내쉴 때도 바이러스 배출”

### 음식점·노래교실 등 마스크 미착용 연쇄감염

### “3밀 환경·환기 어려운 장소일수록 마스크 써야”

### “무증상·경증환자 많을 땐 마스크 유일 보호막”

방역당국이 호흡할 때 내쉬는 숨인 ‘날숨’을 통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출돼 전파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날숨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

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감염자의 입을 통해 기침·재채기나 말을 할 때 생기는 비말(침방울) 또는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졌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가 입을 닫은 채 비말

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코를 통한 날숨 형태로 바이러스의 배출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권 부본부장은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밀폐된 좁은 공간과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철저하면 감염이 차단되는 사례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사회에 무증상·경증환자가 많이 분포된 상황에서 마스크야말로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

했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집단 감염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연쇄 감염이 일어난 대표적 사례다.

관련 확진자만 현재까지 162명에 달한다. 확진자의 약 70%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고령자다.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속 공연과 식사가 함께 이뤄지는 식당에서 출연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식당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기 전 인근 노래교실 등으로도 퍼졌다.

반면 경기 수원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수 차례 방문했지만 같은 기간 예배에 참석했던 700명 중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와 예배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잘한 덕분이었다. 당시 교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에서 증별로 마스크 착용 관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 전 교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다.

권 부본부장은 “3밀의 환경이 조성되고 충분한 환기와 소독이 되지 않는 장소일수록 더욱 더 마스크 착용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직장인 등 많은 국민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음식이 나오기 전과 식사 후에도 바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민경기자



방역당국, 시 오리 살처분 준비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 장성·인천 부대서 4명 코로나 확진...군인 환자 200명 육박

###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잇따라 감염

8일 전남 장성과 인천에 있는 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명이다.

육군 간부 3명, 육군 병사 1명이 확진됐다.

전남 장성 상무대 소속 육군 간부 3명은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

한 뒤 격리 생활을 하다 증상이 발현됐다.

인천 지역 육군 병사 1명도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다.

이 밖에 그날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2명이 이날 완치됐다.

이로써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199명이 됐다.

2월부터 현재까지 군 내 누적 확진자는 431명, 완치자는 232명이



다.

8일 오전 현재 군 내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688명, 군 자체 예방적 기준 격리자는 7011명이다.

기동취재본부

## 덤프트럭이 오토바이 들이받아 20대 사망

8일 낮 12시 40분께 부산시 동래구 만덕2터널 인근 도로를 지나던 25t 덤프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같은날 오후 1시 10분께 강서구 중앙고속도로 삼락 방면 대저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고수습 여파로 4km 가량의 정체가 발생했다.

## 택시 안 흡연시비 친구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택시 안 흡연 문제를 놓고 다투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범의 경위·동기·전력 등을 비취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0시 16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 앞을 지나던 택시에서 내려 동승했던 친구 B씨에게 폭력을 행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커져 택시가 정차했지만 A씨는 택시 차량 문에 B씨를 친 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여수해경, ‘허가구역 위반’ 어선 3척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8일 허가구역을 위반해 불법조업(수산업법 위반·무허가)을 한 혐의로 여수 국동선적 4.99t급 어선 A호 등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허가구역이 아닌 전남 여수시 거문도 북동방 48km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해 새우와 백조기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에서 구획어업(새우조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수역에서 조업해야 함에도 이들 어선은 각 허가구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광양서 경운기 사고로 70대 운전자 숨져

전남 광양에서 경운기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8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24분께 광양시 진월면 한 주택 앞 도로에서 A(79)씨가 경운기 동력 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경운기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동력 벨트 덮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를 몰고 후진하려다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확 짚어버려” 이웃에게 심한 욕한 80대...협박죄 무죄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이웃 여성에게 “XXX를 확 짚어버려”라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 8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80)씨에게 지난 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9시께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층 여성 A(57)씨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씨에게 “올라가서 XXX를 확 짚어버려, XX.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너 X 안 썼는데 썼다고 하면 기분 좋아?”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신씨에게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니 방에서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신씨는 당시 주택 내 흡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